

## 설 연휴 앞두고... 물가, 또 뚝다

휘발유값 ℓ당 1700원대 돌파  
김밥·삼겹살 등 외식물가 올라  
편의점 먹거리·커피값도 들쭉  
작은영화관 관람료까지도 인상

설 연휴를 앞두고 기름값을 비롯, 식료품비, 커피값, 외식비 등이 줄줄이 오르고 있다. 정부가 명절을 앞두고 주요 품목에 대한 물가 관리에 나서고 있지만 쉽지 않은 형편이다.

국내 유가는 ℓ당 1800원을 코앞에 뒀고, 국민 1인이 매일 1잔 이상 먹는다는 커피값도 인상 대열에 합류했다.

외식비는 가격까지 외식하기 부담스러운 정도로 올랐고 과자값도 오름세가 확인된다. 그러나 전남지역 시군에서나마 저렴하게 볼 수 있었던 영화값 인상이 불가피해졌다. 비상계엄에 탄핵 정국 여파로 소비 심리가 침체된 상황에서 물가마저 소비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형편이다.

우선, 기름값은 역대 최고치로 치솟고 있다.

20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 공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이날 기준 ℓ당 1722.73원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798.29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제주(1749.40원), 인천(1727.09원), 강원(1726.31원) 순으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휘발유 가격이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했던 광주와 전남도 ℓ당 1700원대를 돌파했다. 각각 1705.65원과 1714.70원을 기록해 지난해 8월 이후 5개월 만에 또다시 ℓ당 1700원 선을 넘어섰다.

국내 유가는 전국 전 지역에서 15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국제 유가 역시 두바이유 기준 지난 15일 배럴 당 82.24달러로 지난해 10월 8일(78.98달러) 이후 최고치를 경신한 뒤 지난 16일(84.54달러), 17일(84.61달러) 등 매일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는 상황이다.

통상적으로 국제 유가가 오르면 국내 유가 역시 2~3주 이후 오름세를 보인다는 점에서 국내 유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휘발유 가격도 조만간 ℓ당 1800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실정이다.

고물가가 진정될 분위기도 보이지 않는다. 외식 물가가 오르더니 주변 편의점 먹거리와 프랜차이즈 커피 등도 가격을 차례대로 올렸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오는 24일부터 톨 사이즈 음료 22종의 가격을 200~300원 인상한다. 인기 1위 품목 아메리카노 톨 사이즈 가격은 4700원으로 200원 오른다. '오늘의커피' 톨 사이즈와 숏 사이즈는 300원씩 오르고 그란데와 벤티 사이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19일(현지시간) 제60회 대통령 취임식을 앞두고 워싱턴에서 열린 집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20일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한다. /연합뉴스

100원씩 인상된다. 스타벅스는 최근 5개월 사이 3차례 가격 인상을 단행했다.

스타벅스를 시작으로 매일유업 관계사 엠씨씨드가 운영하는 풀바셋도 오는 23일부터 제품 28종 가격을 평균 3.4% 올린다. 동서식품은 지난해 11월 인스턴트 커피, 커피믹스, 커피음료 등 출고 가격을 평균 8.9% 인상했다. 이 밖에 커피빈, 더벤티도 지난해 가격을 인상한 바 있다.

외식물가도 오름세가 멈추질 않고 있는 상황이다. 시민들이 즐겨 먹는 김밥(15.7%), 삼겹살(9.1%) 등은 최근 3년간 오름 폭이 높다. 고물가로 인한 '런치 플레이션'이라는 말도 나올 정도다.

통계청에 따르면 외식 소비자물가 지수는 지난 2022년 7.6%, 2023년 6.0%, 2024년 3.1% 등 최근 3년간 평균 5.6% 인상됐다. 가정비 제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편의점도 예외는 아니다. 오후기의 경우 오는 2월부터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일부 제품 가격을 최대 20% 인상한다.

영화값도 오르고 있다. 특히 저렴한 관람료로 인기를 끌었던 전남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작은영화관 관람료도 줄인상되고 있다.

담양군이 지난 1일 영화 관람료를 기존 6000원에서 7000원으로 1000원 인상했고 곡성군도 지난 8일부터 일반, 우대, 3D 등 모든 부문의 영화 관람료를 1000원씩 올렸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트럼프 "미국으로 공장 가져오겠다"

취임 첫 날 대규모 행정명령...보편관세 도입시 한국 경제 직격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0일(현지시간) 취임하면 불법 입국 차단과 미국 에너지 산업 부흥 등의 공약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취임 첫날에만 100건 가까운 행정명령을 발동하겠다고 직접 예고했다. <관련기사 10면>

국내 기업들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당선인이 '관세 카드'를 강조함에 따라 '관세 장벽' 대응책을 점검하는 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19일 오후 워싱턴DC '캐피털 힐 아레나'에서 개최된 대선 승리 축하 집회에서 "내일(20일)을 시작으로 난 우리나라가 직면한 모든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역사적인 속도와 힘으로 행동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국경에 대한 침략을 저지하고 우리의 부를 되찾으며 우리 발아래에 있는 액체 금(석유)을 해제하겠다. 우리 도시에 법과 질서를 회복하고, 우리 학교에 애국심을 다시 고취하고, 우리 군대와 정부에서 극좌 '워크(woke)' 이념을 퇴출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취임 당일 서명한 행정명령 내용도 소

개했다. 그는 특히 바이든 행정부의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정책을 폐기 대상으로 지목하면서 정부와 민간 영역을 실력주의로 되돌리겠다고 강조했다. 연설 막바지에는 "세금과 인플레이션, 물가를 낮추고 임금은 올리며 수천개의 공장을 공장들이 있어야 할 미국으로 다시 가져올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관세와 똑똑한 정책을 통해 이를 달성하겠다"면서 "우리는 미국산을 짓고, 미국산을 사고, 미국인을 고용할 것"이라며 강력한 '관세 카드'를 예고했다.

업계에서는 보편 관세 관련 조치가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그동안 모든 수입품에 10~2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보편 관세가 현실화하면 한국 경제에도 직격탄이 될 수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보편관세 20%와 대중국 관세 60%를 부과할 때 우리나라의 수출액이 최대 448억달러(약 65조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연합뉴스

## "법원 공격은 법치 부정 매우 중대한 범죄 행위"

법원 난동에 긴급 대법관회의

대법관들이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집단 침입·파괴·협박 행위에 대해 "매우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관련기사 4면>

조희대 대법원장 주재로 20일 오전 열린 회의에서 전대법 법원행정처장을 포함한 현직 대법관 12명 전원은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관해 논의한 뒤 이 같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대법관회의가 공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그만큼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본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입장문에 담긴 문구도 상당히 강경한 어조로 표현됐다.

대법관회의는 "서울서부지법에서 집단적으로 일어난 폭력적인 무단 침입과 기물 파손, 법원에 대한 협박 등의 행위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기반한 헌법 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 행위"라면서 "재판 결과에 불만이 있다고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폭력적 수단을 동원해 법원을 공격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이자, 사법부의 기능을 정면으로 침해하려는 시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사법부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정상적인 기능을 마비시키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도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법관회의는 "경찰 등 관계 기관과 협조해 정사 보안을 강화하고, 법관과 법원 공무원이 어떠한 외부의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고 안전하게 맡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공정한 재판과 정의의 실현을 위한 사법부의 역할을 믿고 그 판단을 존중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화정 아이파크, 경영진 무죄·형장은 유죄 ▶6면

굿모닝 예향 - 영화 속 전담을 거닐다 ▶19면

광주FC 최경록 "진짜를 보여주겠다" ▶22면

사랑과 감사의 71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5]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Sulwhasoo**  
THE ULTIMATE S CREAM  
NEW 설화수 진설크림